

---

# 美合衆國「조지 부시」大統領

## 國會演說文

—1992年 1月 6日—

議長님, 事務總長님!

그리고 탁월하신 國會議員님!

韓國民主義의 상징인 이 殿堂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議長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989年 2월에 처음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은 취임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으며 「바바라」와 나는 아직도 그때 韓國 國民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환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와서 젊으신 여러분들과 우리의 結婚 47周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환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9年 2月은 거의 3年前이었습니다. 그후 짧은 기간동안 우리 세계는 대변혁을 겪었습니다. 自由의 勢力과 共產主義 世界의 서사적인 냉전은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바르샤바」조약도 없어졌으며 소비에트帝國뿐만 아니라 蘇聯자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우리는 民主國家들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自由世界의 등장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지난 며칠간 濠洲와 싱가포르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훌륭한 韓國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자유의 세계가 새로운 어려운 挑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世界 安保와 安定, 民主主義 촉진 그리고 世界 經濟의 발전 및 번영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韓國도 이처럼 변화하는 世界의 중요한 部分입니다. 아니, 韓國은 이 變革의 중심지입니다. 國內적으로 韓國은 民主主義와 自由市場 전통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國際적으로는 韓國이 변화하는 安保와 地政學的인 판도를 구축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國際問題에 대한 貴國의 영향력은 드디어 완전한 UN會員國이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議長님! 나는 韓國의 自由를 지키고, 이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UN 깃발 아래에서 싸워왔던 한 나라의 大統領으로서 여러분이 정당하게 이룩한 업적에 대한 여러분의 공지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가, 하나의 혁명이 우리의 世界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冷戰의 그

---

림자는 아직도 韓國에서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首都 서울 25마일 북쪽에는 아직도 韓半島가 휴전선에 의해서 갈려져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의 民族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人道的인 희생을 과연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韓國人 1千萬名이 40年間이나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왔습니다.

40年間 韓國 國民들은 이런 인위적인 分斷이 종식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40年間 여러분들은 하나의 韓國이라는 꿈을 간직해 왔습니다. 이제 變化의 물결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冷戰의 마지막 상처가 아물 그날도 필연적으로 올 것이며 韓國은 다시 완전한 統一이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내가 3年前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마는 美國 國民들은 韓國 國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條件下에서의 平和統一이라는 여러분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간단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政策입니다.

최근 南北은 總理會談이라는 직접 대화를 통해 緊張緩和와 平和와 이해증진의 기회를 발굴함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肯定的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12月 歷史的인 不可侵 合意,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에 韓半島로부터의 核武器를 영원히 금지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肯定的인 진전은 北의 核武器 추구가 전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단일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은 盧大統領과 韓國 政府의 政策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南韓은 北韓이 살인적인 무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한 措置도 體系의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共和國은 모든 대량 학살의 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公約을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南韓은 核의 再處理 및 농축활동을 포기했으며, 12月8日 盧大統領은 韓國 땅에는 核武器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宣言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南韓은 美國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美軍施設을 포함해서 모든 民間 및 軍事施設의 査察에 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언제나 南韓의 접근방법은 공개적이었고 성실했고 공정했습니다. 이런 우의에 기초한 행동이 있을 때 마다 그것은 北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한층 더 촉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韓半島의 진정한 평화의 전망은 지난 40年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書面上의 약속은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北韓이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北韓이 6年前 非擴散條約에 서명할 때 발생한 北韓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그 核施設에 대한 IAEA 安全措置들을 예외없이 그리고 지체없이 이행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北韓은 大韓民國과 함께 전례없는 共同非核化宣言의 査察 및 검증 부분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北韓의 신속한 조치는 평화를 향한 장정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마는 美國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우방, 남한의 안보에 대한 열망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지난 9월 우리의 核武器 관련 선언이 韓半島를 核擴散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자는 노력의 계기가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있어서 다른 國家들과도 협력하여 北韓에게 多國的인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北韓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韓國內 우리 시설을 공개하겠다는 용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平和的인 제안을 우리의 軍事的 결의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駐韓美軍 減縮計劃을 당분간 보류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共和國的 國民들은 韓國의 안보에 대한 美國의 공약이 꾸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은 우방으로서, 民主主義와 自決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같이하는 한 나라의 大統領으로서 그 공약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수십년간 韓國에서 쿠웨이트에 이르기까지, 仁川과 岾州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美軍들로부터 「사막폭풍」에서 우리와 함께 참여했던 韓國軍에 이르기까지 우리 두 나라는 各 國家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 사이에서도, 共同利益은 共同行動을 요구한다는 국제적 이상을 신봉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이상이 의문시되거나 심지어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들의 일이 끝났으니 우리들은 승리를 선언하고 공동의 적이 패망한 것을 경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냉전시대는 우리 세계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共同의 적을 경계했던 것만이 아니라, 함께 新世界를 건설한 것입니다. 平和를 지키기 위한 集團安保體制, 세계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번영을 가져온 自由貿易體制 그리고 民主主義를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지탱하고 있는 정치적 개방성과 자유에 대한 공동의 공약이 지배하는 신세계인 것입니다.

냉전의 종식이 새로운 격리주의의 시대의 개막을 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自由世界 國家들은 共同의 歷史뿐만 아니라 공동운명을 함께 지니고 있고, 따라서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전진만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지난 40年間的 진전들, 즉 民主主義의 극적인 팽창, 國際貿易의 기하학적인 증대 등은 共同利益의 체계를 창출했습니다. 지금 등을 돌리거나, 이 위대한 自由의 승리를 보고 외면을 하거나, 높은 貿易장벽 뒤의 地域블럭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승리를 비극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美國은 太平洋 國家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있는 만큼 韓·美關係도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軍事同盟으로 시작한 우리의 관계는 보다 광범한 관계, 經濟利益의 공유와 공동된 정치이상을 근거로 한 동반관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韓國의 성장하는 능력은 太平洋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에 기초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의미합니다.

세계는 이제 韓國을 경제적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에 우리의 예산수지 불균형이 90億弗에서 10億弗로 줄어든 것과 韓國에 대한 美國輸出이 지난 2年間 7%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을 기쁘게

---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民主制度強化에서 보여준 장족의 발전을 치하합니다. 저의 지난번 방문이후 3年間の 모든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만 하였습니다. 盧大統領의 장려로 이國會는 韓國政治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회의장에서는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美國 議會에서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民主主義의 모습입니다. 1992年만 하더라도 南韓은 최소 세번에 걸친 선거를 지방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民主主義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견해에 목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1990年 이후만 하더라도 10個의 새로운 일간지가 생겼고 그 밖에 1,000餘個의 간행물들이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個人的 財産,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계 신질서의 초석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봅시다. 그것은 南北間의 대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42年前에 남쪽은 북에 비해 토지도 작았고 자원도 빈약했으며, 인구는 北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南쪽은 自由企業과 自由政府를 향한 진로를 택했습니다. 北韓은 이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보다 강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北을 통치하고 있는 政權은 전체주의와 국제교섭의 막다른 길로 人民들을 행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질식하게 되고, 그 一團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韓國은 民主主義·市場經濟의 國際社會에서 활력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南韓은 平和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번영속에서 平均 年間收入에 있어서 北韓보다 4倍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두 자리 數의 성장의 역사는 南韓으로 하여금 世界 經濟 強國들의 전열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에 기초하여 계속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연료가 되었던 조건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韓國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외부와의 단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韓國은 美國의 일곱번째로 가장 큰 貿易相對國입니다. 이번에 저의 여행에는 美國의 몇몇 主要企業體들의 사장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들은 韓國기업 및 韓國소비자들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韓國의 가장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 등의 주된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개된 해외시장때문에 경제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번영은 개방된 시장에 달린 것임을 한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의 이익이 교차합니다. 호주에서 얘기한 것을, 또 싱가포르에서도 한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經濟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국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일자리와 經濟的 成長입니다. 그러나 美國 勤勞者들에 대한 나의 충성이 韓國 消費者의 이익과 相反되는 것이 아닙니다. 貿易은 모두 얻거나 모두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일부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貿易의 成長은 우리 兩國 국민들에게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보다 잘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保護主義에 대한 압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

---

들은 新經濟孤立主義者들로서 貿易과 機會擴張에 대한 장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韓國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韓國에서의 절약운동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輸入抑制에 활용돼 왔습니다. 이와같은 충동이 어디에서 나타나건 우리는 自由公正公開貿易을 위해서 그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歷史의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금세기 초에 強大國들은 孤立主義와 그 경제적 공범인 보호주의로 한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전쟁과 그리고 恐慌에 처해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次大戰後 自由國家들은 크든 작든 모든 국가들이 공동진로를 추구하면서 同盟關係를 맺고 貿易을 육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世界는 전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今世紀 歷史의 敎訓은 또 韓國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亞細亞 太平洋 經濟協力을 위한 광장으로 되어 있는 APEC의 창설자인 韓國은 이 지역의 경제동반자들과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협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시험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입니다. 經濟強國으로 등장한 韓國은 공개적이고 성장하는 國際貿易制度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 혜택에는 심오한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韓國은 이제 다른 貿易國家들과 함께 多國間 經濟體制를 이끌어가는 부담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두 나라 기업인들과 만나서 오늘 오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여행중에서 나는 가는데마다 「던 켈」초안을 근거로 해서 GATT貿易協商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韓國은 保護主義에 대항하여 싸울 기회를, 자유 번영의 세계로 향한 유일한 진로인 自由公正貿易政策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우리 國民들의 피로 쓰여진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는 냉전중에 맺어졌습니다. 韓國의 존폐위기에서 시작된 그 유대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40年前에 自由世界는 貴國의 투쟁을 자기들의 것처럼 생각을 했고 우리 軍隊는 여기서 폭정으로부터 해방된 미래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貴國은 단순히 생존한 것뿐만 아니라 冷戰의 그늘속에서 자유가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과시해 주었습니다.

기나간 40年동안 韓國은 自由의 전방에 서서 자주와 자유에 대한 수호와 경각심에 있어서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세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40年間, 그 실현을 위해서 싸워온 세계가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韓國은 우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확고한 우방이며 동맹국이며 동반자로서 긍지와 번영과 자유의 나라로서 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大韓民國의 國民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을 기원합니다. ㉞